

데스크 시각

그래도 문화전당이 희망이다



윤 영 기 문화미디어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 A씨는 지난 봄 초등학교생인 아들과 문화전당을 찾았다. 그는 “아빠가 여기에서 왜 일하게?” 물으며 아들과 눈을 맞췄다. 이어 “아빠가 일하고 있는 문화전당은 너희들의 자랑이 될 거야. 네가 아빠의 대를 이어 일하는 곳이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다정하듯 말해 주었다.

그는 최근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승계해 출범한 아시아문화원 공채에 응시해 탈락했다.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을 맡은 문화개발원에서 쏟았던 열정과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기자와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는 아들과의 대화를 들려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현재 단계적으로 문화전당에서 일하고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보고 싶어서다. 문화전당이 오는 25일 공식 개관한다.

지난 9월4일 ‘부분 개방’에 이어 이번에는 공식 개관식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두 번째 개관의 속사정은

문화전당 축이 공식 개관일을 오는 25일로 늦춰 잡을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다.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 원 가운데 예술극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공간의 콘텐츠(전시·공연, 운영프로그램)가 절반가량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 전남도청 등으로 구성된 민주평화교류원은 그때까지도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다.

사실 공식 개관을 늦춘 문화전당 축을 무작정 나무랄 수만은 없는 사정이 있다. 단적인 사례로 문화전당법인 위탁 여부를 정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을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문화전당 운영 조치가 지난 7월에야 꾸러졌다.

문화전당 고위 관계자가 이 기간 문화부에 상주해야 했고 국회의원들의 호출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음은 물론이다.

국절 끝에 문화전당 개관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하다. 비록 일부였으나 지난 9월 선보인 개관 콘텐츠가 10년의 세월을 쓴 결과라고 보기에는 미흡해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부실한’ 개관 콘텐츠는 문화 예술계 인사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말았다.

문화계의 한 인사는 “문화부가 문화전당의 정부 운영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여망을 뒤로 한 채 아특별 개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선보인 개관 콘텐츠마저 실망스러웠다”며 “그동안 소문 부재 행정을 되풀이 해 온 문화부와 문화전당 축이 현재의 태도를 지속한다면 지역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성공의 관건은 시민참여

모든 이들의 소망이 응결된 ‘10년 만의 기다림’이 현실로 다가오는 문화전당 개관의 의미는 적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첫 손으로 꼽아야 할 의미는 문화전당 성패의 한 축을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담당하게 됐다는 것이다. 프랑스 퐁피두, 싱가포르 에스플라네이드 등 세계적인 문화공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데는 지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사실이다.

문화전당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문화전당 안으로 들어가 예술극장, 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정보원, 민주평화교류원에서 펼쳐지는 각종 전시를 관람하고 놀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된다. 굳이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지

않더라도 원터와 휴식 공간을 많이 보유한 문화전당을 가족 나들이 코스로 택해도 된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따뜻한 응원과 참여도 문화전당의 순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사실 문화전당 10년 역사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문화전당과 문화원(옛 문화개발원) 직원들은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기대가 그만큼 컸던 탓이었지만 호된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를 줄곧 들어야 했다. 문화전당 직원들은 기자와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면 어김없이 “문화전당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만 하면 영전”이라며 쓴웃음을 짓곤 했다. 이게 현실이다.

다행인 것은 문화전당 직원들이나 광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보는 지점이 같다는 점이다. 그것은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 그리고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단지 서로 입장과 처지가 다를 뿐이다. 이제 광주 지역 문화예술계도 열린 마음으로 문화전당 사업이나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문화전당은 광주의 희망이다. 그 희망이 오는 25일 개관과 더불어 첫걸음을 땀다.

은편칼럼

600년 역사를 거스르는 장애인복지정책



서 미 정 광주시의회 의원

며 때로는 노비나 집을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은 장애인복지정책에서도 남달랐습니다. 먼저 부모가 나이 70세 이상이 된 사람과 70세가 되지 않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서 한 명의 시정(侍丁)을 주고 장애인과 그 부양자에게 각종 부역과 잡역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시정이란 조선시대에 나이가 많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군역에서 면제된 사람을 말하며 제도적 측면으로는 공익근무나 사회복지원으로 활동을 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조 때에는 아예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세조는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을 활인서(活人署)로 바꾸면서 언어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을 책임지고 돌봐줄 활동보조인 보수(保俸)제도를 실시하고 분기마다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장애인정책은 자활이었습니. 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애인에 대한 직접 고용을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명통시의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선대왕의 묘에 참배

를 할 때엔 시각장애인들에게 경을 읽는 독경사를 맡겼고, 관현(관악기와 현악기)을 다루는 일에도 시각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장애인에게 차별이 없었으니 많은 이들이 관직에 등용되어서 후세에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태종 때 청백리 명재상으로 존경을 받았던 허조는 척추장애인이었고, 우의정으로 중종을 모신 권균은 간질장애인, 광해군 때 좌의정이었던 심희수는 지체장애인이었습니. 일각(一脚) 정승으로 불렸던 윤지완은 숙종 때 우의정까지 올랐던 인물인데, 별명처럼 한쪽 다리가 없는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600년 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늘이 더욱 부끄러워집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잘못 났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정비하고 노인들에게 가는 혜택을 줄이는데 당사자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대책을 말하지 않고 일

방적으로 통보를 해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안도 없이 무턱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 전국의 상황을 자로 재고 칼로 자르듯 결정을 해놓고 나머지 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에서는 행정과 복지담당자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앞으로는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일일이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우선순위 결정이고 행정은 그에 따른 배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하고 똑똑한 단체장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책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주려할 때 ‘왜 너희만 앞서 가느냐, 조금 있다가 정부에서 할 테니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입니다.

600여 년 전부터 이어오는 함께 사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호흡기가는 줄로 생명을 유지하는 장애인,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어 화재로 사망하는 장애인, 자기집 앞마당에서 얼어 죽는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기 고

‘분묘기지권’ 이대로 좋은가



유 순 남 수필가

며 좋아하였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사람들은 호사나 흉사를 조상의 묘와 결부시켜서 이야기하곤 한다. 모두가 효를 인간

의 근본으로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구 땅에 전 땅주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묘 두기가 있다. 계약할 때 분묘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기 대를 걸었었는데, 묘지를 제외한 주변 땅을 깊이 파버리라고 한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더니, 다른 방법으로는 양분을 하겠다는 핏말을 부치고, 분봉을 중심으로 5미터공간을 남기고 아카시아 나무를 뺏백백하게 심은 후, 각 나무마다 명찰을 부치고 사신을 찍어 놓으라고 한다. 아카시아 나무는 생명력도 강하고 번식력도 좋아 몇 년 만 기다리면 그 묘지는 아카시아에 파 무치게 되는데, 만약 제3자가 합부 로 배양을 경우 재물손과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떤 일든 대화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분묘 주인에 대한 연락처를 물어보니, 분묘의 아들은 팔십 세인데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장손은 원양아선을 탄다며 광주시교육청에 근무 하던 퇴직관 조카 되는 사람 전화번호를

주었다. 분묘의 조카 되는 사람에게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바쁘다고 만나주지 않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묘지주인은 광주 시내에 빌딩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장손도 광주 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며칠 전 경기도 개발지역에서 무연고 분묘 19기를 동네사람들과 친척들이 짜고 자기 조상의 묘라고 서로 주인을 서주는 방법으로 속여, 보상금 수령을 받아 챙기려다가 들통이 났다. 어디에선가는 주민들이 개발지역에 묘를 만들어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 또 언젠가는 분묘기 지권이 있는 사람들이 거액을 요구하며 이장을 끝까지 거부하자 해당 토지 개발자들이 해당분묘 주변을 제외하고 땅을 깊이 파버렸던 사건도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수십 년 아니 백년이 지나도 남의 땅에 한번 만들어 놓은 분묘는 비록 땅주인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는 분묘기지권 때문이다.

본래 분묘기지권은 좋은 전통이었다. 과거 가난한 사람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묻을 산이 없을 때, 지인들이 자기 산

에 묘를 쓰게 해주고 묘를 쓴 자리는 묘 주인이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분묘를 옮길 수 있는 형편이 되어도 옮기지 않고, 분묘기지권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적반하장이라 아닐 수 없다.

돈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재산이 많으면서도 조상을 남의 땅에 그대로 두고 땅주인에게 욕을 먹는 것이 조상을 잘 모시는 일인지. 또 그런 일을 과연 조상이 좋아할지 생각해 볼일이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의 분묘기지권은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 설치한 것은 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존속한다.

사람이 죽은 지 30년이 되면 혼백은 다 사라진다고 한다. 남의 분묘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함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부작용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설치 년도에 관계없이 삼십년 이상 된 분묘는 땅을 사서 옮기든, 공동묘지에 옮기든, 아니면 화장을 시키든, 어떻게든 남의 땅에 두지 않게 법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社 說

청년 실업 탈출구 ‘특성화고 활성화’에 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뜨고 있다. 전문 직업교육을 받은 후 사회 진출 기회를 일찍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유망 직종을 발굴해 교육 분야를 늘리면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취업난의 탈출구로 적극 활용할 만하다.

실제로 최근 2016학년도 광주·전남 등 특성화고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지원 가능 성적과 함께 졸업생의 취업률이 주된 관심사다. 남들이 대학 가니 내 자식도 보냈다가 백수로 지내게 하느니 특기과 적성을 살려 빨리 일자리를 찾게 하는 게 백번 낫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과거의 실업고교에 해당하는 특성화고는 요리, 영상 제작, 관광, 인터넷,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조리과학과는 최근 트렌드인 ‘먹방’(먹는 방송), ‘룩방’(오리 방송) 열풍으로 인기 절정이다. 합격하려면 중학교 내신이 상위권 50%대에는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직업 분야 기술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선도학교라고 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도 상당하다. 최근 원서 접수 마감결과 광주자동차실바공고는 3.14대 1을 기록했다. 전남 지역 4개교는 평균 1.88대 1로,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졌다. 이 또한 당장 필요한 기술을 배워 사회에 조기 진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해마다 각 학교 취업률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의 직업관이 실리 위주로 바뀌는 것을 보여 준다. 맹목적인 대학 진학이 불러오는 폐해와 고충을 줄이자는 인식이 확산한 것이다. 사회적 낭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실용적인 직업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앞으로 청년실업 해소의 승통을 트기게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상 걸린 전남도 각종 기금 확대 방안 강구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남도의 각종 기금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초저금리 탓에 수입은 줄었는데 중소기업·농어촌·관광 등과 관련된 융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기금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말 기금 조성 잔액은 1911억3913만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조성 잔액보다 357억 9185만 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 이자율이 지난해 2.5%에서 올 1.5%로 줄어든 반면 경기 침체 등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융자금 대부분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존 융자금이 회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신규 융자가 추가돼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역 영세기업, 농어업인, 관광업체 등이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농어

촌진흥기금 등은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많아 기금 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기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갚아나기야 하는 전남도는 갈수록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광주시는 그나마 16개 기금 중 자금을 기업 및 개인에게 융자해 주는 기금이 적어 전남에 비해 사정은 나은 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기금 이자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또 다시 인하되면 기금 이용도 지속적으로 인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기금의 경우 과도한 금리 혜택을 축소하거나 융자 규모를 제한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도 고려해야 할 처지다. 하지만 기금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근본적으로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절실적인 영국 록밴드 ‘퀸’의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의 본명은 파로크 불사라다. 탄자니아 출신이지만 영국에서 퀸을 결성해 음악활동을 하면서 이름을 프레디 머큐리로 바꿨다. 오페라 형태의 파격적인 시도로 주목받은 ‘보헤미안 랍소디’는 4옥타브를 넘나드는 그의 목소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노래다. 머큐리(Mercury)는 로마신화에서 도둑과 전령의 신으로 프레디는 음악의 전령사가 되겠다며 머큐리를 이름에 넣었다.

머큐리에는 ‘빨리 움직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행성 가운

지도를 만들었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수은의 쓰임새를 3000여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요즘에도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데 온도계, 혈압계, 수은등, 형광등, 상처 소독제인 머큐로 크롬, 치아 충전용 아말감, 인주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수은이 아누스처럼 두 얼굴을 가졌다는 점이다.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 중독으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수은 중독의 심각성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였다.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사람 2265명 가운데 1784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일명 ‘미나마타병’으로 불리고 있다.

광주에서 남영전구 공장 철거 근로자들이 수은에 노출돼 6명이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들은 하얀 수은 불방울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놀았다고 한다. 국내에선 1970년대 이후 30년 만에 발생한 수은 중독 사건인데도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은 제로 상태다. 아랍담게 보이는 것은 치명적인 독을 내뿜고 있는 법이다. 관계 당국의 방치속에 근로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니 안타깝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수은의 두 얼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2-9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개발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